

제19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5. 12. 21(월) 10: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김 연, 김창원, 박민정, 박영화, 심동섭, 유인수
윤재은, 이성옥, 이웅배, 이해경, 진철문, 호해란
- ◆ 안 건 : 미술작품 12건 15작품(조각 14, 미디어 1)
[신규 12작품, 재심 3작품]
- ◆ 결 과 : 승인 9작품, 부결 6작품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2015년 제1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위원 12명 중 12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수결에 따라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세곡2보금자리 작품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이 여러 번 나오는 거 같습니다.

- 이 작가의 작품은 한달에 한번 꼴로 작품을 심의하는 거 같습니다. 대중이 좋아한다면 나쁘지는 않지만..
- 오늘 심의에 한 작가가 2곳에 작품을 냈는데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예술의 변별력 면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 작품이 설치되어도 좋은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곳저곳에 설치한다면 예술의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찌다 심의를 들어와 보면 이 작가의 작품이 꼭 한건씩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1번과 5번으로 2작품이 들어왔습니다.
- 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예술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쉽지 않은 문제인거 같습니다.
- 본인이 스스로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작품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곳에서 공모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좋은 작품을 하는 작가에게 많은 컨택이 들어오고 잘 되면 또 다시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게 되는 식인데 이거에 대해 서울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인지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작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예를 들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작품”을 여러 곳에 놓고 싶다고 했을 때 세계의 주요도시 1~2군데 정도는 카피작품이 가능하지만 여러 곳에서 원한다고 다 설치해주면 희소성도 떨어지고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비슷한 작품이 여러 곳에 설치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자제를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작가의 작품이 계속 심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작가에게만 작품 의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작가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생각을 해봐야할 내용인거 같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점수로 반영을 하면 될 듯합니다. 작가가 자기 스스로 검증하고 필터링해서 작품을 내면 좋을텐데 그게 어려운거 같습니다.
- 충분히 의견을 나눈 거 같으니 그럼 2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번은 미디어 작품이어서 준비된 샘플영상이 있습니다.
- 요즘 LED모듈로 해서 폴리카보네이트에 쓰는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미디어 작품이 심의에 들어올 경우 프리젠테이션 방법이라든지 내용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표시되는 동영상은 지면으로 만 심의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밤에는 영상이 나오는데 낮에는 그냥 구조물만 있는 건가요?
- 아뇨 낮에도 영상이 출력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19페이지에 영상시스템 개통도는 나와 있는데 이런 미디어작품에서 낮에 얼마의 룩스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의도서상에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개선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폴리카보네이트는 어떤 겁니까? 전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아서요
- 아크릴보다는 훨씬 강도가 강합니다.
- 앞으로 이런 작품이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 이 작품이 정확히 어디에 설치되나요? 보통 6페이지에 나와야 할 거 같은데요.
- 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제 사건을 말씀드리

면 16페이지에 폴당 간격이 15cm인데 이게 애매한 사이즈여서 어린아이들이 끼일 수 있는 간격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술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안전성에서의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조형물이 높 이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건축물과의 조화가 빈약한 거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화강석에 대한 잔다짐 처리같은 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 이런 작품의 경우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는데 좌우 측면의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 밤에는 이미지가 송출이 되어 좋은데 낮에는 좀 조도 등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그림 그런 면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거 같고 3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인의 시각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 일반인의 식전에서 보면 이 사이즈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너무 큰 형태인 거 같습니다.
-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크기를 좀 줄여야 할 거 같습니다.
-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모작인지 확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작가를 알려주시죠.
- 확인결과 생각하시는 작가가 맞습니다.
- 도톰하게 바닥에 만든 거 보이시죠. 이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잔디로 할 수 없나요?
- 이 작가 작품의 전시에서 보면 등그런 스테인리스로 처리했었는데 여기는 야외장소라서 스테인리스로 하지 않고 돌로 하긴 했는데요. 작가의 의도라는데 있어서 없애라고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도 좀 위험해보입니다.

- 공공미술이라는게 원래의 작품에서 전환을 시켜야하는데 전환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작품이 그대로 나온거 같습니다.
- 만약 승인이 된다면 작가의 의도도 있지만 옆에 잔디처럼 처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낙타를 형상화 한건가요? 낙타는 포유류라서 알을 낳지 않는데요.
- 작가의 세계로 창작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어야 할 거 같습니다.
- 미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이 된다면 조건을 달아서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거 같습니다.
- 5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작품 검토 시 함께 봤던 내용이어서 따로 얘기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번 작품입니다.
- 8페이지를 보시면 배와 돛대가 만나는 부분이 매우 약해보입니다.
- 작품의 상부와 하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부만 하던지 하부만 작품으로 하던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도면을 보면 핀 하나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정면 배면을 보면 양쪽 모두 고정이 되었는데 그래픽 상으로 정면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돌려보면 우측면을 보면 좀 보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지난번 작품도 예술성 부족이었는데요. 이번 작품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1~5번까지의 작품은 맨날 보던 작품이 구요. 이번 작품은 못 보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히려 안보던 작품이라서 그런지 참신해 보이는데요. 약간 보강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이전 작품보다는 많이 좋아 진거 같습니다.
- 점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7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품 1과 2가 있는데요. 스테인 리스에 색깔을 가미한건가요? 16페이지 보면 다른 작품인가요?
- 실제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 설치사례를 넣어둔 겁니다.
- 위례1차 아이파크에 비슷한 작품이 기 승인되어 설치되었고 이번 심의는 위례2차 아이파크에 시리즈 식으로 심의가 들어온 작품입니다.
- 옆에 나무나 공간하고도 맞지가 않아 보입니다. 작품 두개를 분리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 네. 각기 따로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 이런 방식은 안에 보강재를 넣을 수도 없는데 33페이지에 보면 바닥구조에 대한 구조 설명만 있습니다.
- 35페이지 봐주시죠.
- 재료가 알루미늄입니다. 4T짜리입니다.
- 재료가 스텐레스 스틸과 듀랄루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아이들이 올라갈 때 이 재료가 버틸 수 없을 거 같습니다.
- 두께가 9센티인데요. 33페이지 구조가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이건 하부 구조이구요. 여기에는 구조가 안 들어갑니다. 공공미술은 취객들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 요즘 제프쿤스 작품을 모방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 8-2번 작품의 작가 좀 알 수 있을까요?
- 돌을 바닥에 박은 거 같은데요.
- 8-1의 작품성은 의문이지만요.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7페이지에 구조도가 있습니다.
- 가격이 2억 7천인데요. 가격에 맞추려고 크기를 키운 거 같습니다.
- 17페이지에 구조안전확인서를 넣기는 했는데요. 안전에 대해 작가측에서도 검토를 한거 같습니다.
- 다소 불안한 작품은 공간이 충분해야 하는데요. 공간이 좁은거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9번 작품을 보겠습니다.
- 작가 프로필을 알고 싶은데요.
- 대를 2중으로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옛날 스타일인거 같습니다.
- 지금 이런 작품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등포 오피스텔 신축공사건입니다. 스테인리스스틸에 LED조명이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 사각 파이프이고 끝으로 나가면서 올라가는데요. 심의도서상에서 조명설치하는데 모듈, 강화유리 등을 넣었는데요. 사실 전기 배선이 중요한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 크기가 18m인데요. 이렇게 앞에는 붙어 있고 밖으로 뻗으면서 벌어지는데 유지보존이 가능한가요?
-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평면도가 있고 왼쪽위에 보면 사각 파이프 사이즈가 100밀리인데요. 길이가 18미터이면 중간에 8미터 이상의 휘어진 파이프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흔들려고 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하부는 앙카로 잘 설치하였는데요. 7미터 중심의 무게중심을 잡

아놓고 나머지는 다 들려봤는데 기초 콘트리트를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지 그런 사항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또 한 가지는 15와 17페이지를 보시면 작품주기에 경계석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이 되어 있고 경계석이 야간에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3D의 맹점인데요. 17페이지의 윗 그림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수조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경계석에 물이 있는 거 같은데 상당히 규모가 크게 되어 있는데 이곳의 전기시설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배수관련 사항이라든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수조 제작방법이라든가 안내도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이 작품의 무게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위에서 놀리는 무게때문에 버티기 힘든 구조물인데 중간에 보강하는 거 없이 설치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 이걸 구조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11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왜 3작품을 놓아야 하는 건가요?
- 작가측 얘기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시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 예술적인 소견은 다 달라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조각 작품은 온사방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조합성을 갖는 것도 아닌데요. 중구청에서 왜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작가의 작품인거죠?
- 네, 그렇습니다.
- 공모작품입니까?
- 갤러리 지명 공모를 했는데 신청하는 쪽에서 이를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공모가점은 포기를 했습니다.
- 작품 간격을 좀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 3작품의 조화를 이루는 평면도도 없습니다. 작품 각각의 크기와 실제로 놓여지는 사이트의 크기가 얼마인지 등의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건물과의 조화, 원경 등이 있습니다. 야간장면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오른쪽 작품 높이가 4미터인데요. 작품사이를 어느 정도 추정만 하는 겁니다. 어떤 수치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 이 작품의 위치가 중구 아닌가요?
- 이 건물의 위치가 국립의료원 옆인데요.
- 작품은 좋은데요. 거리를 좀 충분히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자치구의 요구가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랬는지 자료를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구에서 그런 요구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고려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간격을 조정하는걸 조건으로 주어도 좋을 듯 합니다.
- 5페이지를 보면 전체 공간의 조화를 고려하였다고 작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 작가가 중구청의 요구로 인한 고충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줘도 될 듯합니다.
- 12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암동 IT 콤플렉스 작품입니다.
- IT 콤플렉스 작품의 모작 시비가 있어서 지난 심의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재심에 들어와서 또 탈락이 되어서 2등 작품이 올라왔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심의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1등이 탈락되면 2등작이 올라온다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 작품이 또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탈락을 시켰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건 안맞기 때문에 심의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 ○ 12-2 작품도 재심사유가 있고 보완사항 등이 있는데요. 독창성 결여로 이철희 작가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보완이 돼서 오른쪽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심의에서 1등 작품이 떨어졌는데도 다른 작품으로 올려야지 왜 1등 작품을 다시 보완해서 올렸는지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1 작품도 지난번 심의 때 부결이 된 건인데 이번 심의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 ○ 작품 가격이 5억6천인데요.
- ○ ○ 저번 심의에도 왔었고 이번 심의에도 들어온 것은 지난 심의에서 부결된 작품이 왜 보완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지에 대한 관련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2-2번의 작가명은 재심이나 부결되었던 다른 작가와는 다른 작품인거죠?
- ○ ○ 저는 참고로 심의위원으로 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행업체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공모한 작품을 심의에서 떨어졌지만 혹시 보완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작품의 경우 탈락 작품이 비슷한데 저번에는 하트 모양인데 이번에는 새싹모양인데요. 작가측의 의견은 지난 번심의에서 부결된 이유가 미디어 작품인데 외관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아 부결된 것으로 보고 이번 심의에서는 본인들은 미디어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다시 받으려고 한 거 같습니다. 뒤에 첨가한 것이 미디어 연출에 대해 49페이지에 모양이 새싹이지만 다양하게 연출된 미디어에 대한 걸 심사받고 싶다는 거 같습니다.
- ○ ○ 그렇다면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나요? 차선 작품을 올려야 하는데요. 기준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 ○ ○ 참고로 공모부분에 대한 것을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 ○ ○ 1등 당선작이 부결이 되면 차선작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작품이 하트에서 새싹으로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 ○ 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차선작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된다고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 ○ ○ 이런 경우를 허용해 주면 조건부 가결이 아니라 부결이 되었을 때 같은 작품을 작가들이 계속 심의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 ○ 공모시 심사했던 위원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작품에 대해 가점도 부과를 하고 있구요. 지난번에 예술성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심의 공모요건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작가를 선택했느냐 작품을 선택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작가를 선택했을 때는 다른 작품이 올라오는게 맞습니다만 작품을 선택했을 때는 차선작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 ○ ○ 기준을 정확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 ○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 재심이 들어온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요. 먼저 결정한 것에 대해 뒤집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 ○ ○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 작품이 통과되지 않은 건 예술성 결여 인데요. 예술성에 대한 의견은 다른데요. 지난번에 이걸 떨어뜨렸는데 이걸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게 이전 심의한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2가 똑같이 두 번을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 건가요. 심의위원의 의견은 없고 손을 봐서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구조인건지 구조적

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이 작품들에 대해 가산점을 줘야하는 겁니까?
- 이거에 대해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준다고 되어있어서 일단은 가산점을 염두에 두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 이상 토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채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진행>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

<위원장>

- 오늘은 15개 작품 중 6번과 7-1번, 7-2번, 9번, 10번 작품이 탈락되고 2번, 3번, 4번, 11번은 조건부 승인,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1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